

[79~8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09 [28~34]

(가)

향단(香丹)아 ㉠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_\_\_\_\_ [A]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_\_\_\_\_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올리나  
㉠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달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_\_\_\_\_ [B]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_\_\_\_\_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_\_\_\_\_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_\_\_\_\_  
함께 답새라 \_\_\_\_\_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_\_\_\_\_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어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찢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렬\*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 만승(萬乘)\*  
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하얗 :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부렬 : 부러워할.  
\* 삼공 : 삼 정승.  
\* 만승 : 천자(天子).  
\* 소부 허유 :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약뚫더라 : 약았더라.

7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80.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81.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 <보 기> —

운선도는 '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2.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83.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 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84.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 ② 2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 ③ 3연: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 ④ 4연: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 ⑤ 5연: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85.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인 금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금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져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 ④ '면 퇴'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 ⑤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보 기> —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가)에 대한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별’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네요. (가)의 시적 상황이 여기에 나오는 ‘꿈’이라고 가정한다면, (가)는 이별한 도련님을 그리워하는 상황이 그려지겠습니다. 도련님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꿈에 서라도 보자고 하니, 여기에서 ‘꿈’은 도련님에 대한 그리움, 재회와 관련된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가)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아마 화자는 춘향이인 듯 하네요. 향단을 청자로 삼아서 ‘그넛줄을 밀어라’고 하기도 하고, <보기>에서의 ‘꿈’이 시적 상황이니깐요. 왜 그넛줄을 밀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겠습니다.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계속해서 그넛줄을 밀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 여기서 대략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로’, 자신을 밀어 올려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달라고 하네요.

→ 시의 맥락을 생각한다면 ‘울렁이는 가슴’은 화자(춘향)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일 거예요. 가슴이 울렁인다는 것은 속이 안 좋다, 마음이 안 좋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차를 타서 멀미할 때도 속이 ‘울렁거린다’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떤 감정이 요동친다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마음(가슴)이 요동친다(울렁인다)는 것은, 곧 어떤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 <보기>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가슴이 울렁인다는 화자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르면 이 시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가슴이 울렁인다는 것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의 슬픔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화자의 정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수미상관으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화자)’는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 ‘갈 수가 없다’고 해요. 즉, 도련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넛줄을 밀어달라는 화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그넛줄을 ‘하늘’로, ‘구름같이’ 밀어 올려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자는 실제로는 하늘로 갈 수도 없고, 달처럼 갈 수도 없습니다. 즉, 도련님을 보러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벗어나 도련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하늘로 밀어달라는 거예요.

- 서정주, 『추천사』 -

그넷줄을 밀어달라는 화자의 태도를, <보기>에서 제시한 이 별의 상황과 엮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작품입니다. 도련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그넷줄을 밀어달라는 행위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 작품을 감상하는 출발점입니다.

— <보 기> —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나)의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은 '새'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새'처럼 자유로움을 희망합니다. 즉, '새'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화자는 새처럼 자유로워 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자는 억압적인 상황에 놓여있고, 그 고통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겠네요. 시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 시적 대상 모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날으는 새여  
뭉인 이 가슴

→ 화자의 가슴은 묶여있습니다. 반면 새는 하늘과 구름, 산맥을 거닐며 날고 있죠. 억압적 상황에 놓인 화자와 자유로운 '새'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그리고 화자는 자유로운 새의 모습을 지향하죠.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 화자의 가슴은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물어뜯고 있네요. 그 이유가,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아무래도 '닿지 않는 마지막 살'은 화자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화자는 가슴이 묶여있는 억압적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즉, 화자 자신의 몸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 그렇다면 물어 뜯는 것은 화자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무언가이겠죠? 자신의 살을 물어 뜯는 자해 행위를 하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화자는 '밑바닥 마지막 살'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피'만 흐를 뿐이죠. 이 '피'는 자신을 묶고 있는 무언가를 물어 뜯어서 흐르는 화자의 피입니다.

→ <보기>의 내용을 떠올리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화자가 자신을 억압하는 무언가를 물어 뜯는 행위는, 자유를 위해 억압적 상황(고통)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쉽게 얻을 수는 없어요. '피'만 흐를 뿐, 화자가 그리워하는 '마지막 살'에는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 첫 행의 '너'는 '새'입니다.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대상입니다. 반면 화자는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즉 '땅을 기는 육신'과 하늘을 '날으는 새'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 이런 억압적 상황에서도 화자는 '새'의 자유로움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너'를 우러러 보면서 읊니다. 이를 '서러운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자유를 갈망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화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뻘건 몸뚱어리'로 '몸부림'을 칩니다.

→ '시뻘건 몸뚱어리'는 앞 연에서 제시된 '피'를 흘리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억압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새워 물어뜯'다가 피를 흘렸어요. 그 피에 화자의 몸이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계속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죽더라도 '너(새)'가 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새의 자유로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도 화자는 자유를 얻는 것이 힘들다고 인식합니다. '죽어 너(새) 되는 날'이 곧 자유로워지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걸 '길고 아득'하다고 표현하네요. 그만큼 자유를 얻는 게 힘들다는 뜻이겠죠?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낮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 여기서 ‘낮’은 화자의 ‘낮’을 가리킬 겁니다. 화자의 낮은 날이 밝을수록 ‘침침해’간다고 합니다. 화자의 고통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반면 새는 계속해서 ‘떠나가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묶여있는 화자와 대비된다는 점을 꼭 생각해주셔야 해요.

청정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네, 이번에도 수미상관으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화자는 여전히 묶여있고, 새는 산맥 너머 떠나갑니다. 새는 화자와 대비되고, 화자는 자유로운 새를 지향합니다.

- 김지하, 「새」 -

화자와 ‘새’가 대비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화자가 계속해서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화자가 놓인 억압적 상황,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새의 모습은 모두 <보기>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었죠? <보기>의 내용을 잘 적용했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보 기〉 —

금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저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작가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여기서 보이는 작가의 태도가 곧 화자의 태도겠죠? 자연에 은거하면서 자연을 즐겼다, 자연 지향적 태도가 핵심이군요.

\*이번에도 현대어로 잘 나와있기 때문에 따로 현대어 해석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 화자는 산수간(자연) 속에서 띠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네요. ‘그 모른 남들’은 자연을 지향하는 자신을 비웃지만, 화자는 어리석은 자신에게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이 분수에 맞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어리석다고 가리키는 건 겸손의 표현이죠?

보리밥 쫄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럼\* 줄이 있으랴

→ 계속해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여남은 일’이 부럼지 않다고 해요. 그럼 여남은 일은 속세의 일을 뜻하겠네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으시다.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 계속해서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그리워 하던 님이 오더라도 자연에서의 즐거움만큼은 못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연이 좋다는 것이죠.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똥더리\*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으랴

→ 이번엔 벼슬에 빗댕니다. 삼정승이라는 고위 관직은 물론, 왕(천자)도 자연의 즐거움에 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만큼 속세의 가치보다는 자연에서의 삶이 좋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임천 한 흥’(자연에서의 즐거움이겠죠?)을 비길 곳이 없다고 해요. 자연이 좋다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 자신의 성질이 게으른 걸 알아서 하늘이 화자로 하여금 인간 만사의 일이 아니라 ‘다툼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했답니다. 자연 속에서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화자는 이를 즐깁니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갓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 네, 자연을 즐기다가 임금 은혜를 떠올립니다. 이런 표현은 자주 등장하니 익숙해집시다.

- 윤선도, 「만흥(漫興)」 -

- \* 하얗: 시골에 사는 건물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릴: 부러워할.
- \* 삼공: 삼 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뒸더라: 약았더라.

흔한 강호가도 작품입니다. 속세를 지양하고 자연에서의 삶을 즐긴다는 태도만 잘 잡았다면 감상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7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바로 정답입니다. 두 작품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가)는 입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에서는 억압적 상황에서 새의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가 한 번 더 제시되었으니 정서 심화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시간의 경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의 경과를 주로 계절의 변화나 아침 → 저녁의 흐름으로 드러냅니다.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객관적인 시각’이 되려면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대상의 묘사가 주를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나)와 (다)에는 모두 화자의 정서·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나)에서는 자유를 지향하는 태도가, (다)에서는 자연을 지향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일단 (가)는 확실히 틀렸죠. 화자나 향단이와 자연물이 대립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로 밀어 올려 달라고 하니 대립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설명입니다. (나)와 (다)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서는 ‘새’와 화자의 처지가 대비되고, (다)에서는 속세적 가치와 자연이 대비되고 있어요.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단정적 어조는 주로 현대시에서는 ‘~다’라는 어미와 화자의 확신적 태도가 드러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에서는 단정적 어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오’라는 청유형 어미를 쓰고 화자의 확신적 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도 비슷합니다 ‘~다’의 어미나 화자의 확신이 없어요.

80.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보 기> —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B]의 화자는 억압적 상황에서 고통에 맞서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A]의 화자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죠. 도련님과 이별했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넛줄을 밀어달라고 할 뿐입니다. 그럼 [B]의 화자가 조언한다면, 끝까지 고통에 맞서라는 말을 하겠군요. 이런 뉘앙스의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정답 선지 볼게요.

정답 선지 확인하기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 네, [B]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자유를 위해 억압적 상황에 맞섰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현실에 맞서라, 꿈을 좇아라는 얘기를 하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오답 선지 확인하기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81.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정답 : ①

- ㉠ 그넛줄, ㉡ 풀꽃더미, ㉢ 산호(珊瑚), ㉣ 하늘, ㉤ 구름

— <보 기> —

윤선도는 '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보기>에 따르면 '띠집'은 자연을 지향함과 동시에 군신, 부자 윤리와 같은 세속적 가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대상입니다. 즉,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지향을 가로막는 모순적인 시어를 골라야겠어요.

- 이 포인트를 파악하고 나면 '그넛줄'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넛줄'은 화자가 임과의 이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어달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동시에 화자가 하늘로 날아갈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달 같이 달 수 없게 만드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넛줄이 화자를 떠나지 못하게 잡고 있으니까, 되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화자에게 장애물이 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2.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 ㉢

- ㉠ 날으는
-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 ㉢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 ㉣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 ㉤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 네, 시적 허용으로 음절을 늘리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작품 해설에서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낮은 밝아지는데 '침침해져간다'는 건 모순적입니다.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자조'가 아닙니다. 고전시가의 맥락상 화자는 자연을 지향하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보다 낮다고 하죠. 반어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건 자신을 겸손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④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띠집 짓고 보리밥을 먹는 삶은 사실 왕의 삶과 비교할 땐 부족합니다. 하지만 화자는 왕 보다 낮다고 표현하죠. 그만큼 자연에서의 삶이 좋다는 거예요. 과장을 통한 만족감, 맞는 말입니다.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느냐'라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물음은 아니죠? 내 분으로 누운 게 아니라 임금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답을 알고 있고, 임금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83.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 ㉤

— <보 기> —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 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름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상처를 노래하진 않았습디다. 이별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넷줄을 밀어달라는 화자의 태도가 핵심이었죠.

②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신분에 대한 한탄?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중요한 건 이별 상황이었죠!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미지 세계에 대한 동경도 아닙니다... 이별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핵심이었던 걸요.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이것도 전혀 아니죠? 절대자에게 귀의한다는 종교적인 태도는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디다.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이게 정답입니다. 화자가 그넷줄을 밀어달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도련님을 못 보는 상황에서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84.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 ① 1연 :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 화자는 묶인 반면 새는 날고 있습니다. 거리감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저'라는 지시어는 이미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해설 Comment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법을 묻는 문제가 21.09 사령 세트에 등장했습니다. 아래의 선지입니다.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여기서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는 '이', '저'와 같은 표현을 가리킵니다. 최근 기출에도 나온 포인트인 만큼 지시어를 바탕으로 물리적 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숙지해둡시다.

- ② 2연 :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 2연에서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피'만 흘리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납니다. 암울함과 연결할 수 있겠죠?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암울하니까 화면을 어둡게 해야겠습니다.

- ③ 3연 :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 네, 화자의 '육신'이나 '서러운 눈', '몸부림'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압적 상황에 놓은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화자의 상황을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화자를 강조해야겠죠? 클로즈업 하고 효과음도 사용해야겠어요.

- ④ 4연 :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4연에서는 낮이 밝을수록 낮이 '침침해진다'고 표현했는걸요. 화자의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 ⑤ 5연 :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 네, 화자는 새의 자유로움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도 화자는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와 '구름'에 주목합니다.

85.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인 금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 <보 기> —

금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저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 네, 작가가 실제로 산속에서 살 집을 마련하고 정자와 정원을 조성해 놓고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산수간'도 띠집을 짓고 화자가 지내는 공간이죠. <보기>와 연결하면 화자가 실제로 거주한 공간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 ①번 선지와 같은 맥락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작가가 실제로 정자와 정원을 조성해 놓고 살았으니, 화자가 거닐던 '바위 끝 물가도' 실제 정원의 공간일 수 있겠습니다.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 작품을 잘 이해해야 풀리는 선지입니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은 화자가 부러워 하지 않는 관심 밖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산수를 즐기는 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었죠. 둘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④ '먼 뒀'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 네, <보기>에 따르면 작가가 유배된 직후 은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 뒀'는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바라보는 대상이죠. 유배의 상처로 인해 자연에서 은거하니 충분히 작가를 치유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⑤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네, <보기>에서 작가가 유배된 상황을 제시합니다. 즉, 속세에는 갈등(정쟁)이 존재합니다. 반면 '인간 만사'와 대비되는 '강산'은 '다툼 이'가 없죠. 누굴 유배 보내거나 하는 정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